제6강 존재론(철학)과 자연철학(과학): 갈등과 화해 Ⅱ

(1교시)

파르메니데스는 자신의 사상을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전통을 이어 장중한 서사시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 서사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서두에는 미숙한 사고를 뜻하는 '밤의 나라'로부터 밝은 빛으로 충만한 '진리의 나라'에로 나아가는 여정이 묘사되어 있다. 빛의 나라에서 파르메니데스는 여신(女神)들을 만나 진리를 듣게 된다. 이것은 호메로스 이래의 '계시(啓示)'의 구조를 잘 드러낸다. 여신을 만나는 것은 '미스테리'와도 같은 행위이며, 플라톤이 강조한 '영혼의 전회(轉回)'를 뜻하기도 한다. 파르메니데스가 어둠의 나라와 빛의 나라를 날카롭게 나눈 것은 감각의 세계와 이성(로고스)의 세계를 날카롭게 나눈 것에 대응한다.

두 번째 부분인 '진리의 길'에서 파르메니데스는 "있음은 있고 없음은 없다"고 한다. 있음이 있다고 보는 길이 있고, 없음이 있다고 보는 길이 있다. 여기에서 있음, 없음은 무엇인가가 있다/없다고 할 때의 있음/없음이 아니다. 그 이전에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존재론적 논의거리로서 존재와 무에 관한 것이다. 파르메니데스는 없음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도 말할 수도 없다고 한다. 무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파르메니데스는 "아는 것과 있는 것은 같은 것"(단편 3)이라고 생각한다.(이 '존재와 사유의 일치'는 서구 철학의 근본 전제로 자리잡는다) 요컨대 있음은 가능하지만 없음은 가능하지 않다.

(2교시)

파르메니데스의 이런 주장에는 그리스어 특유의 맥락이 깔려 있다. 서구의 be동사('einai' 동사)에 '있음'과 '임'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이 당대에 알려져 있지 않았다. 파르메니데스는 'is'라고 말하기 위해서도 'is not'을 써야 한다는 사실에서, 없음은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is not'은 "있다-없다"를 함께 쓴 것이고, 이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is not'을 쓸 수는 있다. 파르메니데스는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사유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특정한 언어체계에 갇힐 수밖에 없는 사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파르메니데스는 이런 기본 전제로부터 다와 운동을 부정하게 된다. 운동은 존재로부터 무로 또는 무로부터 존재로의 이행을 뜻하는바 여기에 모순이 있다고 보았다.(파르메니데스는 '있음'과 '임'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적 운동조차도 절대적 생성/소멸로 보았다) 아울러 만일 多를 인정한다면 불연속과 차이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多 역시 부정할 수밖에 없었다. 불연속과 차이는 무를 함축하기 때문이다. 파르메니데스는 多와 운동을 부정함으로

www.artnstudy.com

써 그리스 사유에 거대한 충격을 가져왔다. 자연철학 자체가 다와 운동을 전제하고서 이루어진 행위였기 때문이다.

퓌타고라스 학파가 수와 사물을 구분하지 못했듯이, 파르메니데스는 추상 개념으로서의 '존재'와 구체적인 사물을 뚜렷이 구분하지 못했다. 때문에 '존재'는 부동의 자기동일적인 완벽하고 충만한 구(球)로서 표상되었다. 파르메니데스는 이 '존재'를 일자(一者)라 불렀으며, 이후 이 일자 개념은 서구 철학사의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세 번째 '억견(臆見=doxa)의 길'에서 빛과 어두움의 이분법에 근거한 파르메니데스는 장대한 우주론을 전개한다. 이것은 '진리의 길'과 모순된다. 그러나 파르메니데스는 우리가 억견의 세계에 살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진짜 같은[사실상 가짜인] 이야기'도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한 탐구가 오히려 '진리의 길'의 설득력을 더 강화시킨다고 보았을지도 모른다.
파르메니데스는 '존재론(ontology)'의 효시를 이룬다. 파르메니데스의 비판은 자연철학에 대한 존재론의 문제제기의 효시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제논(Zenon)은 스승 파르메니데스를 옹호하기 위해서 무수한 역설들을 만들어냈다. 제논은 '귀류법(歸謬法=reductio ad absurdum=reduction to absurdity)'을 사용했다. 제논이 귀류법을 사용해 제기한 '역설=paradoxa'들은 무한과 연속성의 문제를 낳았으며 이후 무수한 철학자들과 수학자들을 매료시킨다. 제논의 방법은 소피스트들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를 '변증법의 발견자'로 평가한다.
제논의 역설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아킬레우스와 거북이'와 '날아가는 화살'일 것이다. 이 역설들에는 무한, 연속성, 순간, 존재-무-생성을 비롯한 여러 심오한 존재론적 문제들이 잠복해 있다.
제논의 역설들은 이후 숱한 논의들을 가져 왔으나, 그 중 베르그송(Bergson)의 논의가 유명하다. 베르그송은 제논의 역설이 시간을 공간화하려는 인간의 오성(= 분석적 이성)의 성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속' 개념을 제안하게 된다.

www.artnstudy.com